

## ‘책의 해’라 해서 공짜책까지...

길바닥에서 책이 광고전단처럼 마구 뿌려지고 있다.

‘책의 해’ 벽두인 지난달 9일 8 출판사가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문앞에서 ‘도서 무료증정행사’란 걸 벌였다. 2시간만에 20여종 1만권의 책이 동이 났다고 한다. 모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출판사대표는 “다소 번거로운 행사였지만 독자에 대한 보답으로 과감히 창고를 개방했다”고 밝혔다.

물론 출판사의 홍보전략이라고 하면 답이 궁해진다. 출판계 불황이 오죽해야 뭐라 할 것이 아

닌가. 그러나 짝잡하다. ‘문화상품’인 책을 감히 그럴 수 있다고 말하고 싶진 않다. 다만 책의 정가판매를 철칙으로 삼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1만부나 되는 책의 무상배포는 홍보를 이유로 묵인하기 힘든 행위다. 그것도 단 한권의 에누리 없이 책을 파는 서점의 코앞에서라면 더욱 그렇다.

독자입장에서야 몇천원씩 하는 한권의 책을 거저 얻는 건 분명 즐거운 일이다. 하지만 홍보를 위해 별도제작한 것도 아닌 ‘정품’을 길가다 운이 좋아 얻은 독자에게 즐거움만 있었는가. 출판유

통이란 게 역시 엉망이구나 혹은, 책장사가 여간 안되는 모양이구나 등등.

책의 해를 맞아 한달새 백화점과 서점을 돌며 벌어지는 이런 행사를 보며 웬지 몇몇 출판사가 책의 해를 ‘이용’해 속셈만 챙기는 것같은 상한 기분마저 든다. 정말 폐기처분하기 아까운 재고 도서를 활용할 생각이었다면 출혈이나 책의 해 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책 보내기 운동’에 동참하면 될 것이다. 그도 싫으면 지방의 오지나 텅빈 도서관 서가를 채우는 데 일조하는 게 낫지 않을까.

틈만나면 부르짖는 책문화의 ‘격조’가 고작 공짜라면 양젓물도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노려 재고도서나 처분하는 거라면 일찌감치 문화는 버리자. 그리고 홍보효과도 기대하지 말자. 길바닥에서 얻은 책에 시간버리며 몰두할 독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 최태원 기자

# 출판저널

통권 122호 / 1993년 2월 20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壹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鄭素淵 鄭蕙玉 崔允源  
 李聖洙 金重植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金弘鏞

업무차장 — 尹東鎬  
 업무·광고 — 李義天 崔炳天  
 金攸姬 金容一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타이피아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權寧彬	琴章泰	金光秀	金文煥
金錫滿	金聖坤	金珍鍾	金榮漢
金仁會	金鍾元	金治洙	金泰漢
金泰賢	金泰亨	朴明淳	朴星來
朴世熙	潘星完	邊衡尹	徐淵昊
宋相庸	申福龍	慎鍾寬	安秉永
安輝濤	梁文吉	吳光洙	柳一相
尹志寬	李康淑	李璟薰	李光周
李基相	李斗曠	李萬烈	李炳勳
李相日	李勝羽	李元載	李重漢
李姬載	林煥燮	張必和	張會翼
鄭丙圭	鄭慶鍾	鄭聖瑛	鄭晉錫
鄭鎮弘	曹南鉉	曹大鉉	崔鍾庫
韓相震	韓勝憲	許碩烈	洪廷善
黃鉉產			(가나다 순)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한)의 A지로 용지로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불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싸다고 생각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 재미있는 책이야기

과학평론가·법률가·천문학자 등 다양한 직업이 따라붙는 美학자 마이클 H. 하트가 쓴 「세계사를 바꾼 사람들」(김평옥 옮김, 에디터)은 역사상 영향력을 발휘하며 세계를 움직였던 1백명의 인물들을 선정해 그들의 업적과 생애를 소개한 인물명사사전이다. 서문을 통해 나름의 엄격한 선정기준과 경위에 대해 밝힌 저자의 이 책은, 특히 역사적 인물들의 저서를 그들의 위업을 평가하는 잣대로 삼고 있어 눈길을 끄는데, 이 가운데 두 부분을 살펴 소개한다.

### ■ 다윈

1836년에 다윈은 귀국해서 그로부터 20년 이상 잇따라 책을 출판, 영국 생물학자의 제1인자로서 명성을 떨쳤다. 1837년초에 동식물의 종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질 시대사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그때에는 아직도 진화의 원인이 무엇인가는 확실히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1838년에 멜더스의 「인구론」을 읽고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얻었다. 그것은 바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경쟁을 통해 자연선택이 이뤄진다는 생각이었다.

어 무렵 영국의 지질학자 찰스 라이엘의 「지질학 원리」도 다윈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1839년 그는 「비

글호 항해기」를 출판해 여행 중의 관찰기록을 발표하면서 진화설의 기초를 확립했다. 또한 지질학의 문제, 산호초 생성원인의 연구에 착수했다. 1842년에는 건강 때문에 켄트주의 다운에 의거하며 진화설에 관해서 집필하기 시작해 1844년에는 두툼한 큰 책이 될만큼 원고가 모아져 1856년부터 논문을 정리하고 있을 때 당시 동인도에 있었던 영국의 박물학자이자 사회사상가인 윌리스가 1858년 손수 진화설의 개요를 정리한 원고를 다윈에게 보내왔다.

다윈의 저서 「종의 기원」이 이듬해인 1859년에 출판되자마자 초판 1,250부가 발매 당일에 매진될 정도로 열광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켜 뒤에 6판까지 발행되었다. 그때까지 과학적으로 「종의 기원」만큼 과학자에게도 문외한에게도 널리 읽히고 활발한 화제를 자아낸 책은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논의는 1871년에 다윈의 다음 책 「인류의 유래」가 출판될 때까지 그치지 않았다.

찰스 다윈은 원래 종의 진화라는 발상의 창시자는 아니다. 몇몇 사람이긴 하지만 다윈보다도 훨씬 전에 그 설을 자명한 것으로서 가정한 과학자들이 있었다. 그중에는 「동물철학」(1809)의 저자로서 ‘用不用說’을 주장한 프랑스의 박물학자 라마르크와 2권의 「동물법칙」속에서

진화 가능성을 서술한 다윈의 할아버지 에라스무스 다윈 등이 있었다.

### ■ 볼테르

필명 볼테르, 본명 프랑수아 마리 아루에는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의 주요인물이며 시인·극작가·수필가·소설가·역사가·철학자로서 볼테르는 그당시 그야말로 자유사상을 잉태했던 자유주의자의 시조이다.

볼테르가 귀국해 최초로 낸 철학서 「철학서간」은 일명 「영국서간」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이 책은 1734년에 출판되어 프랑스 계몽운동의 촉매제 역할을 선연하고 있다. 그뒤 15년 동안의 대부분을 볼테르는 동부 프랑스의 시레이에 있는 애인 샤텔레 후작부인의 영지에서 저술과 연구의 나날을 보냈다. 이 시기에 그는 「형이상학 개론」과 「뉴턴 철학의 원리」를 간행하고 철학서 「인간론」을 완성했다. 또한 희곡 「시저의 죽음」, 「마호메트」, 「메로프」 등 무거운 작품을 상연하고 절찬을 받았다.

그는 참으로 경이적인 다작의 저술가로서 실로 이 책의 1백명 가운데 책수효가 가장 많은 저작자일 것이다. 이것 저것 그가 쓴 글을 모으면 3천쪽 이상이 된다. 그중에는 서사시·서정시·서간·팸플렛·소설·소품집·극작·역사·철학 등등 각

종의 것이 있다. 그중에서 「관용론」과 세계문명사인 「풍속시론」 철학소설 「칸디드」, 「자연법」, 「백과전서」, 「철학사전」이 만년의 대표작이다.

볼테르도 이 책에 나오는 다른 철학자와 마찬가지로 결코 독창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볼테르는 유독 빼어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첫째로 저 신랄한 어조의 문체, 오랜 경력, 극히 많은 저서와 그 누구보다도 많은 독자를 거느리고 있었다. 둘째로 그의 사상은 완벽한 계몽사상적인 특색을 갖추고 있다. 셋째는 타이밍이라는 점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앞서고 있었다. 몽테스키외의 명저 「법의 정신」은 1748년까지는 출판되지 않았다. 유명한 「백과전서」는 1751년에 나왔다. 루소의 최초의 에세이는 1750년에 저술되었다. 이것과 대조적으로 볼테르의 「영국서간」은 1734년에 씌어졌고, 그것이 출판되었을 무렵에는 이미 유명인이 되어 16년이나 지난 뒤였다.

철학소설 「자디그」와 「칸디드」를 제외하고 그의 저서는 지금은 그다지 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18세기에는 많이 읽혀졌으므로, 마침내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키도록 사회여론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다한 셈이다. 제퍼슨·매디슨·프랭클린 같은 미국인들도 그의 책을 애독했다.